

“전국에서 가장 模範 지회로 발전”

(사)한국상록회 포천지회 발기인대회 개최

토종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상록회 포천지회 발기인대회가 김영호 한국상록회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월22일 12시에 개최됐다.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최효열 회장은 “뜻깊은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한국상록회 포천지회가 태동하는 날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히고 “전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국상록회 김영호 총재는 “상록회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1937년도에 설립된 항일투쟁으로 조국

을 지켜왔으며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전에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활동해 온 순수 봉사단체”라고 밝히고 “상록회의 훌륭한 정신의 맥을 앞으로 포천사회에서도 이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기인대회에 이어 가진 이사회 의에서는 오는 8월21일 창립총회를 갖기로 의결했으며 창립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사회가 합심하여 함께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회원 모집에도 나서고 있다. 상록회의 훌륭한 정신의 맥을 이어나갈 뜻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토종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상록회 포천지회 발기인대회가 김영호 한국상록회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월22일 12시에 개최됐다.

인성회복운동, 환경회복운동 및 어려운 이웃돕기 등을 주요 모토로 하고 있는 한국상록회 포천지회 이사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최효열 ▶상임부회장 박노현 ▶내무부회장 임영규 ▶외무부회장 조경선 ▶감사 이수복 ▶감사 서현희 ▶사무국장 김영복 ▶총무이사 신형숙 ▶홍보이사 송태고 ▶재무이사 이은미 ▶조직이사 원용식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음악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집중교육

대진대 음악학부, 이동면 도평초등학교에서 1주일간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도시와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음악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진대학교 음악학부 학생들이 7월28일부터 8월1일까지 1주일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소재 도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도시와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음악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진대학교 음악학부 학생들이 7월28일부터 8월1일까지 1주일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소재 도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 4년째 실시하고 있는 음악수업은 하루에 4시간씩 1주일동안 진행되며 이론, 감상, 합창, 1:1 실기교육 등 4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기교육은 리코더나 하모니카, 피아노 교육을 하고 있으며 간단한 악기는 음악학부 학생들이 준비해서 교육이 끝나면 학교에 기증한다.



대진대학교 음악학부 학생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진대학교와 음악학부와 대진대학교 학생지원과에서 250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강원도 정선군 가수분교에서 음악교육을 실시했다.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돼 있는 가수분교 24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음악교육을 실시했으며 음악교육을 마친 후에는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발표 공연도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2007년도에는 포천시 관내 지원초등학교와 도평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실시했으며 반응이 좋아 겨울방학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대진대학교 음악학부 학생들이 7월28일부터 8월1일까지 1주일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소재 도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도평초등학교 학생들이 12명의 대학생들이 1주일간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음악학부 대학생들은 피아노, 성악, 작곡, 관악악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음악교육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돼 있는 음악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기교육에 나서고 있다. 대진대학교 기숙사에서 숙식

이같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차호성 대진대학교 음악학부 교수는 “음악학부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배우고 익힌 음악적 지식을 무대 위에서 연주하며 청중들과 만남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현장에서 찾아가 작은 음악회를 열거나 음악을 이용한 봉사활동과 교육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 교수는 전문적인 음악교육이 부족한 일선학교 학생들에게는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접 교육에 나서는 대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생들을 대상으로 무료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무료음악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진대학교 음악학부 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곳에서 배운 학생들이 음악을 전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진대학교 음악학부 학생들의 이같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되어 있지 않는 학교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紙上갤러리 ④ 그림에서 드러나는 의미와 상징

정인자의 수리아의 꿈



수리아의 꿈, 캔버스 위에 오일, 50호, 2008

정인자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인도에 머물며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인도의 정신을 연구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왔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은 첫 대면한 사람은 매우 인도적인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인도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적이라고 느낀다고 하는데 이는 인도와 한국의 신화나 설화 그리고 종교적인 유사성을 접목하여 나름대로 전개시킨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가 자주 다룬 인도 신화는 ‘라마와 시타’이다.

라마의 꼬임으로 별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며 정절과 부부

의 성스러운 의무를 다한다는 얘기이다. 때문에 라마와 시타는 힌두교도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작품 ‘수리아의 꿈’은 캔버스에 오일로 표현한 작품으로 우리의 오방색에 한색과 난색의 대비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가운데 강을 중심으로 좌측 상단에 태양의 신 수리아 그 밑에 3명의 여인, 강 우측은 한 남성을 정면적으로 표현하고 하단은 온갖 꽃과 짐승을 표현했다. 이는 악마의 꼬임으로 남편과 헤어진 여인을 태양의 신 수리아가 보호함을 의미한다. 아직은 만나지 못하니 언젠가는 만남을 예고하기에 신 수리아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우리의 탈과 같은 해학을 간직하면서 땅과 하늘은 빛으로 결합한다. 농동자의 직시와 화면 아래 새의 몸부림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자각으로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갈구하는 마음이 아련하다.

결국 정인자는 ‘수리아의 꿈’에서 선과 악을 포괄하는 인간의 문제를 전생과 다음 생애에서 연인이며 부부인 라마와 시타라는 신화를 통해 사랑을 종결하고 승화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 김구원(화가, 계간버질주간)

식물과 사랑 ③ | 자주천인국 Echinacea purpurea

인디언의 핑크빛 지혜



요즘 도로를 달리다보면 코스모스보다 일찍 피어 손을 흔들어주는 핑크색 또는 노란색 꽃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핑크색 꽃은 ‘자주천인국’(에키나세아; Echinacea purpurea)이고 노란색 꽃은 ‘원추천인국’(루드베키아; Rudbeckia bicolor)이다. Echinacea속과 Rudbeckia 속 식물의 영명은 Coneflower인데, 꽃잎이 핀 후에 종자가 여무는 모양이 콘 솔방울(cone)같아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두 식물은 색깔만 다른, 닮은 꼴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많이 다르다. 원추천인국에 비해 자주천인국은 중심부 관상화가 금속성 광택이 있으며 매우 뾰족하고 꽃잎도 좁은 편이다. 높이는 60~150cm 정도 자라는 다년초이며, 잎에는 거친 털이 있어 만져보면 까끌까끌하다.

꽃은 7~10월에 피며 설상화 꽃잎은 뒤로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꽃도 오래 피고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는 식물이라서 최근 도로 녹화용 소재로 많이 사용된다. 중앙-동북 아메리카에서 자생하는 자주천인국은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구급약으로 많이 이용되어왔다. 뱀에게 물렸을 때나 굼은 상처에 사용되며, 최근에는 뛰어난 정혈약으로 밝혀져 특히 부은 곳이나 고름, 부스럼 등 불순한 혈액으

로 인해 생기는 피부병에 사용한다. 근경에는 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에이즈연구자들이 위해 연구되고 있다. 화해 장식이나 포푸리에도 사용된다. 며칠 전 우거진 나무들을 정리해주는 전정작업을 하다가 무더위에 지쳐 잠깐 쉬는 사이, 호랑나비 한 쌍을 발견했다. 한 눈에 반한 사이인지만 서로 꼭 붙어 떨어지지 않더니, 결국 예쁘게 핀 자주천인국에 앉아 짝짓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가든 관리를 하는 것이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종종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날 때면 얼굴에 미소가 그려진다.

녹음이 짙어져 가는 여름, 핑크색식물의 습지원 주변과 들꽃동산, 연못정원에 들러 핑크빛 미소로 맞이하는 자주천인국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진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

손자은 평강식물원 기원관리팀
 문의: 031-531-7750

축 OPEN

환경 조경공사

포천 나무(묘목) 시장
 각종 유실수 및 관상수 묘목 · 잔디 · 도/소매



대표 김 영 해

TEL. 535-6085
 팩 스 : 031)536-6086
 휴대폰 : 011-757-6085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46-7(대운광장 뒤)

잔디, 묘목, 관상수, 유실수, 준공수
 자연석, 강화석 전문시공

※ 농가에서 재배하신 수목을 구매 및 판매하여 드립니다.